10.15686/fkl.2025..64.147 OPEN ACCESS

영화배우 신일선(1912-1990) 연구

백문임
연세대학교 교수

목차

1 시작하며
2 제1기: ‘조선의 애인’ 신일선의 등장
2.1 「아리랑」(1926)부터 「먼동이 틀 때」(1927)까지
2.2 스타 이미지의 좌표
2.2.1 영화소설의 실연(實演) 사진과 스타덤
2.2.2 ‘순결한 처녀’ vs “까불까불 유쾌하게 뛰노는 인물”
3 제2기: 컴백 후 두 번째 은퇴까지 (1933-1938)
3.1 음반 활동: 「지나간 그날」(1933)을 중심으로
3.2 영화와 시나리오 활동: 「청춘의 십자로」(1934)부터 「기생편: 수야(愁夜)」(1937)까지
4 제3기: ‘「아리랑」과 나운규의 신일선’으로 기억되다
5 마치며

국문초록

신일선(申一仙;1912-1990)은 영화를 통해 대중적 인지도를 획득한 첫 여배우 중 한 명으로서, 15세 때 데뷔작인 「아리랑」(나운규, 1926)으로 일약 '조선의 애인'에 등극했을 만큼 많은 인기를 모았다. 영화와 방송, 무대 등 조선의 초기 대중문화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중 갑작스런 결혼으로 1차 은퇴(1927), 이후 1933년 컴백하여 음반 및 영화 활동을 하다가 생활난으로 기생이 되면서 2차 은퇴(1938)를 하고, 해방 후 나운규와 「아리랑」의 정전화 과정에 생존자로서 기여한다. 하지만 신일선에 대한 연구는 아직 진행된 바 없다.

본 논문은 「아리랑」 이후 「먼동이 틀 때」(심훈, 1927), 「아리랑 3편」(나운규, 1936), 필름 프린트가 현존하는 「청춘의 십자로」(안종화, 1934) 등 총 10편의 영화에 출연하고 수종의 극 음반을 취입했으며 방송극과 무대 공연에 참여했던 신일선의 활동을 최대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과정에서 그간 주목받지 않았던 신일선의 '실연(實演) 사진,' 즉 『백의인』(이경손, 1927)부터 「기생편: 수야(愁夜)」(박기채, 1937)까지 신문 연재 영화소설과 시나리오에서 그가 연기했던 작업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를 통해 초기 영화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스타 신일선의 면모가 드러나고, 특히 여배우로서 그의 삶과 스타 이미지가 담론화되는 방식이 비판적으로 고찰될 것이다.

국문핵심어: 신일선, 스타, 여배우, 「아리랑」(1926), 극 음반, '실연(實演) 사진', 영화소설, 시나리오

1 시작하며

> (1) 신일선. 영화 유사 이래 처음되는 인기를 한 몸에 담았던 분이다. 당시에 여배우로서는 누구보다도 청초하고 순진하고 또 예술적 재분을 겸비하였었다.[강조-인용자][1]

1 나웅, 「사라진 명우 군상, 생각나는 사람 보고싶은 사람」, 『삼천리』 제10권 11호, 1938.11.

(2)정든 님 버리고 길 떠나면 / 십리를 못가서 발병이 나네.
저 유명한, 가장 조선 내음새가 많은, 민요 '아리랑'을 제명으로 하여 가지고 박힌 활동사진「아리랑」일편이 얼마 전에 단성사에서 상영되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건대 영원히 잊어버리지 못할 만 큼 그렇게 강하게 관중에게 인상된 사람이 있으니 이는 이 사진에 나타난 나이 어린 여주인공 영숙 [원문 그대로임]이라는 처녀였습니다.「아리랑」의 영숙이는 그 깨끗한 모양과 티없는 연출로 말미암아 한번에 뛰어올라 만도의 인기를 한몸에 입었으니 그의 본명은 신일선이요, 나이는 금년에 열다섯입니다. 미국에 유명한 희극배우 더글라스 페어뱅스의 아내 메리 픽포드는 세계의 애인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일선 양도 조선의 애인이라고까지 했습니다.[강조-인용자][2]

신일선(申一仙;1912-1990)은 연극무대가 아닌 영화를 통해 대중적 인지도를 얻은 여배우라는 점에서, 그리고 데뷔작인「아리랑」(나운규, 1926)으로 "영화 유사 이래 처음되는 인기"를 얻으며 "조선의 애인"에 등극했다는 점에서 초기 영화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다. 근대 초 여배우 중 그간 제일 많은 관심을 받았던 사람은 이월화(李月華;1904-1933)라 할 수 있을 텐데, 이월화가 토월회 등 연극무대에서 출발하여 영화로 이어진 경력을 보여준 데 비해 신일선은 처음부터 '영화' 배우로 인식되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3] 또「아리랑」에서 주인공 최영진(나운규 분)의 여동생 영희를 연기했던 이 15세 소녀는 그 용모와 기예가 확

2 「예술가의 가정(4): 조선이 가질 미래의 예술가 신일선」,『중외일보』, 1926.12.4.

3 「여배우 번영기」(『조선일보』, 1938.1.4.)라는 글에서는 "조선 영화계의 여배우로서 제일 먼저 손꼽아야 할 사람은 김정숙"이라 말하는데, 김정숙(1906~?)은 신일선보다 약간 먼저 등장하여「개척자(이경손, 1925)」와「장한몽(이경손, 1926)」에 출연했다. 이후 영화소설『백의인(이경손, 1927)』의 실연 사진과 영화「먼동이 틀 때(심훈, 1927)」는 신일선과 함께 촬영하기도 했는데, 인기 면에서 "한동안 세상을 뒤흔들었"던 신일선에는 미치지 못했다. 신일선과 "대등한 인기와 연기를 가진 이로서 문예봉"만이 언급될 정도로, 신일선은 짧은 경력에 비해 폭발적인 관심을 얻었다.

실히 “조선 여우로서는 누구보다도 영화배우적 소질을 가장 풍부히 가진 사람”[4]으로서 (이월화와 달리) 노래 재능도 지니고 있어, 상영과 공연이 공존했던 초기 영화에 잘 부합하는 존재였다. “세계의 애인”으로서 “일요일로만 가득찬 달처럼 명랑하고 가장 사랑받는 존재”[5]로 평가되는 메리 픽포드(Mary Pickford)에 비견되며 신일선이 등장하자, 조선의 대중문화에는 ‘기이한 열기’가 들끓게 되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가?”[6]라는 질문과 분석이 이어질 정도였다.



[그림 1] 「아리랑」의 나운규와 신일선. 『동아일보』, 1926. 9. 19.



[그림 2] 「조선이 가질 미래의 예술가 신일선」, 『중외일보』, 1926.12.4.



[그림 3] 「신영화 「봉황의 면류관」에 자매역: 윤메리, 신일선」, 『동아일보』, 1926.10.15.

「아리랑」 개봉부터 다음 해 「먼동이 틀 때」(심훈, 1927)까지의 시기는 조선영화 제작의 “홍수시대요, 황금시대”[7]로, 신일선은 이 1년간 무려 여섯 편의 영화에 출연했다. 또 당시 새로운 글쓰기 형식으로 등장한 ‘영화소설’ 두 편에도 연달아 ‘출연’하게 되는데, 『조선일보』에 1927년 1월부터 5월까지 연재된 『백의인』(이경손) 및 곧이어 연재된 『승방비곡』(최독견)은 모두 배우들의 ‘실연(實演) 사진’을 실어 관심을 모았고, 신일선은 두 작품 모두에서 주인공이었다. 신문과 잡지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신일선에 대한 기사를 싣고 있었고, 1927년 2월 개국한 경성방송국(JODK)에서는 신일선이 출연하는 ‘최초의 라디오 드라마,’ ‘최초

4 김을한(영화동호회), 「「아리랑」 6권; 조선키네마 작」, 『동아일보』, 1926.10.7.
5 몰리 해스켈, 이형식 역, 『숭배에서 강간까지: 영화에 나타난 여성상』, 나남출판, 2008, 79쪽.
6 이서구, 「내가 본 신일선」, 『매일신보』, 1927.3.11.
7 심훈, 「조선 영화계의 현재와 장래(1)」, 『조선일보』, 1928.1.1.

의 방송영화극'을 송출했다. 반도여학원의 '동정음악회' 등 각종 무대 행사에서는 신일선을 초대하여 노래나 연극 등의 공연을 이어가는 등, 1926년 10월부터 1927년 말까지 조선의 인쇄, 공연, 방송, 영상 등의 대중매체는 신일선의 무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초기 미디어 산업이 형성되던 시기의 '스타'였던 신일선에 대해, 그간 연구는커녕 그 이력을 상세하게 정리한 작업도 거의 없었다는 사실은 사뭇 기이해 보인다.[8] 그 이유를 추측해 보면 첫째, 작가나 감독, 작품에 비해 배우나 스타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연구 경향 때문이겠다. 일반 관객이나 저널리즘의 관심이 대부분 배우나 스타와 같은 개인에 치우치는 데 비해, 혹은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그들의 활동과 업적을 세밀한 기록으로 남기거나 분석하는 데에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둘째, 근대 초기 조선에서 여배우를 둘러싸고 형성되었던 편견[9]과, 실제로 이들이 처했던 불우한 환경이 그 편견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이들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가로막았던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대중문화 계통에 종사하

8 신일선의 이력을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하는 글은 황문평의 「민족영화 「아리랑」의 여주인공 신일선」(『인물로 본 연예사: 삶의 발자국(1)』, 도서출판 선, 1998, 306-318쪽)과 강옥희 외, 『식민지 시대 대중예술인 사전』(도서출판 소도, 2006, 188-190쪽) 정도인데, 그 정보는 대부분 신일선의 「무성영화 시대: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중앙일보』, 1970. 11.23.-12.10)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신일선의 이 회고는 과거의 각종 기사나 인터뷰 등의 기록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한편 신일선을 "최초 여성스타"라 부르며 한국의 스타 계보에서 간단히 소개한 천정환의 「욕정과 순정, '스타'의 두 얼굴」(『신동아』, 2004. 10, 582쪽)과, 탐정·모험 활극 「괴인의 정체」(김수로, 1927)에서 신일선의 캐릭터를 서구 연속영화의 '시리얼 퀸(serial queen)'과 관련하여 분석한 이화진의 작업(「무성영화 〈괴인의 정체(1927)〉의 재구성」, 『한국극예술연구』 제77호, 한국극예술학회, 2022, 181-210쪽)이 있다. 특히 후자는 신일선의 출연작을 다룬 흔치 않은 연구라 할 수 있다.

9 예컨대 『별건곤』의 기자는 신일선에게 직접적으로 "조선서는 여배우라 하면 정조 관념도 없고 아무것도 볼모없는 아주 천하고 더러운 사람으로만 여겨주는데 거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신일선의 대답은 "그거야 모르고 그러는 것이니까 저만 안 그러면 그만이지요. 그러기에 저는 극장에를 가도 오빠와 꼭 동행을 하고 다른 동무와는 같이 다니지도 않아요."였다. 「조선 영화계 유일의 화형 여우 일문일답」, 『별건곤』 제7호, 1927.7.

여 이해가 깊은 아버지나 남편의 지원이 가능했던 (문예봉 등)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많은 여배우들이 척박한 식민지 대중문화 산업 내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카페 여급, 댄서, 웨이트리스, 기생 등의 직업 전선으로 나가야 했다. 이것은 언제나 '추문'과 '전락'의 낙인을 동반하며 가십거리가 되었을 뿐, 담론화되거나 본격적인 탐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아리랑」으로 일약 스타가 된 신일선이 다음 해인 1927년 말 돌연 전라도 부호의 첩이 되며 은퇴를 선언한 것은 엄청난 스캔들로 치부되었고, 6년이 흘러 그가 이혼 후 활동을 재개했지만 결국 몇 년 후 한성권번 기생으로 전신을 한 경로는 "좀 더 돈이 그리워" 전락한 것[10], 수양을 쌓지 않은 "조선 여자 대다수의 운명"[11]으로 간주되며 멸시와 동정의 대상이 되었다.

이서구 ……신일선이같이 '조선의 애인' 노릇을 한 이가 근대사 중에는 없을 걸요.

복혜숙 그렇지요. 거장 나운규가 끌어내어 영화 「아리랑」을 만든 뒤로는 조선에 금강산과 신일선이 명물이 되었지요. 천도교당이나 청년회관에 음악회가 있으면 신일선이 출연한다면 언제든 만원이었지요. 그러던 색시가 어쩌면 기생으로 또 지금 소문에는, 저 딴 길을 밟아 옛날의 명성을 짓밟고 말다니 참 가석한 일이에요.

이서구 비단 신일선이에만 하는 말이 아니라 대체로 여자란 젊었을 때는 그저 미모와 아름다운 자태로 그 명성을 유지할 수 있지마는 그러나 나이 들면 그때는 교양의 힘이 아니고는 도저히 인기를 유지해갈 수가 없거든. 그런데 신일선이야 동덕고녀인가 어딘가 다니다가 말고 그 뒤도 수양을 아니하니 전락할 밖에 별수 있어야지. 조선 여자 대다수의 운명이야.[강조-인용자][12]

10 김태진, 「무대는 돌아간다(4): 여배우 무상 부침기」, 『조선일보』, 1939.6.6.

11 「장안 '재자가인', 영화와 흥망기」, 『삼천리』 11권1호, 1939.1.

12 위의 글.

복혜숙의 말처럼 등장하자마자 "금강산"과 더불어 조선의 "명물"이 되었던 신일선은 이렇게 식민지 말기부터 잊혀지게 된다. 그러다가 한국전쟁 후 남한에서 나운규와 「아리랑」을 정전화하는 과정에서 다시 영화계의 호출을 받는다. 나운규 20주기 기념으로 만들어졌던 영화 「아리랑」(김소동, 1957)에 특별출연을 했고, 나운규 추도회나 동상 건립식 등에서 노래 '아리랑'을 부르는 등, 나운규와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었던 동료의 하나로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설이 된 「아리랑」의 여주인공으로서 대중문화계에 마지막 자취를 남기게 된다. 1979년 그가 한국영화평론가협회로부터 특별 공로패를 받을 즈음엔, 그의 사생활을 입에 올리는 회고는 보이지 않았다.

근대 초기 영화배우와 스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세 번째 이유로, 이들의 연기를 확인할 수 있는 필름 프린트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치명적인 문제를 들 수 있겠다. 21세기 들어 국내외에서 '발굴'된 십여 편의 작품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1930년대 후반 이후에 제작된 것들이다. 덕분에 1930년대에 등장한 배우 문예봉, 김일해, 김신재, 김소영 등에 대한 분석은 다소 성과를 보였다. 신일선의 경우도 2007년 「청춘의 십자로」(안종화, 1934)가 발굴된 덕분에 그 연기하는 모습이 공개되는 행운을 누리게 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나운규를 제외한 조선영화 초창기의 배우들에 대해서는 자료와 연구 모두가 부족한 형편이다.

본 논문에서는 신일선에 대한 연구의 디딤돌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우선 영화와 '실연(實演) 사진,'[13] 연극, 라디오, 음반, 무대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던 신일선의 활동과 그에 대한 담론을 1기(데뷔부터 1927년 결혼 및 첫 은퇴까지), 2기(1933년 복귀부터 1938년 두 번째 은퇴까지), 3기(해방 후 활동)로 나누어 최대한 복원하고자 한다. 이 작업을 위해 첫째, 과거 기사, 인터뷰, 평문 등의 기록을 중심에 놓되, 신일선이 1970년에 남긴 회고록 「무성영화 시대: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중앙일보』, 1970.11.23.-12.10)도 참조할 것이다. 이 회고록은 환갑에 가까워진 그가 과거 이력을 정리한 결과물로서 이후 신일선 관련 기

13 영화소설이나 시나리오의 특정 장면을 배우가 실제로 연기하는 것을 촬영한 사진을 말한다. '장면 사진,' '스틸'이라 불리기도 했다. 조선에서는 심훈의 영화소설 『탈춤(1926)』 연재시 처음 시도되었다.

록들(각주 8 참조)의 토대가 되었다는 중요성을 지니지만, 자발적, 비자발적 기억의 오류 혹은 왜곡을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논문에서는 그간의 영화사 서술에서 누락되었던 일련의 신문 연재 영화소설과 시나리오를 신일선의 출연작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영화소설 『백의인』(이경손, 1927)과 『승방비곡』(최독견, 1927), 신일선의 컴백 후 연재된 시나리오 『은하에 흐르는 정열』(안종화, 1935), 신일선이 기생으로 전신한 후 발표된 시나리오 「기생편: 수야(愁夜)」(박기채, 1937)는 일간지에 연재되면서 주인공 신일선의 실연 사진들을 게재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중 『백의인』과 「기생편: 수야」는 그간 거의 주목받지 못했던 작품이고, 『승방비곡』은 최독견의 인기 소설 혹은 1930년 이구영이 감독한 영화(여기엔 신일선이 출연하지 않았다)로만 알려져 있으며, 『은하에 흐르는 정열』은 함께 진행되었던 영화 제작에 가려 역시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신일선이 출연했던 영화 프린트가 (「청춘의 십자로」를 제외하고는) 유실되었다는 점에서도, 이 영화소설 및 시나리오들은 그 자체로 새로운 장르로서만이 아니라 스타 신일선을 규명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서 가치를 지닌다.

지금까지 확인한 바 신일선의 활동 내용을 간단히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연도	신문 연재 영화소설,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제작사)	방송, 무대, 음반 등
1926		10.1.「아리랑」(나운규/조선키네마프로덕션)	
		11.1.「봉황의 면류관」(이경손/계림영화협회)	
1927	1.20~4.25 영화소설 『백의인』(이경손)	2.24.「괴인의 정체」(김수로/극동키네마)	● 경성방송국(JODK) 최초의 '라디오 드라마' 「명예와 시인」, 소녀 합창극 「인생춘몽」, 소녀창가극 「리(狸)와 토(兎)」 등 ● 최초의 '방송 영화극' 「금붕어」 ● 반도여학원의 음악, 무도, 연극대회 출연(독창, 연극 「스산나」 주연 등) ● 5.7 '산유화회' 결성 ● 6.11 '백양회' 결성

	5.10~9.11 영화소설 『승방비곡』(최독견) *스틸촬영:나운규와 조선키네마프로덕션 배우 일동	4.14.「야서(野鼠:들쥐)」 (나운규 /조선키네마프로덕션)	
		7.6.「금붕어」(나운규 /조선키네마프로덕션)	
		10.26.「먼동이 틀 때」 (심훈/계림영화협회)	
1933			폴리돌 전속으로 음반 취입, 각종 무대공연
1934		9.21.「청춘의 십자로」 (안종화/금강키네마)	오케 전속으로 음반 취입, 각종 무대공연 (~35년 3월)
1935	8.20-9.15 시나리오 『은하에 흐르는 정열』(안종화)	9.7.「은하에 흐르는 정열」 (안종화/금강키네마)	
1936		5.15.「아리랑 3편」 (나운규/한양영화사) *발성영화	임생원 일행의 문수성좌 활동
1937	8.29-9.3 시나리오 「기생편: 수야(愁夜)」 (박기채) *안종화 외, 연작 단편 시나리오『여인부락』 (『동아일보』, 1937. 08.15.~09.30.)의 세 번째 작품		한성권번 입적
1957		4.19.「아리랑」 (김소동/남양영화사) *특별출연	

1963		5.16.「상처받은 두 여인」 (이규환 /서울프로듀스클럽) *특별출연	

[표 1] 신일선의 대중문화 활동

2 제1기: '조선의 애인' 신일선의 등장

2.1 「아리랑」(1926)부터 「먼동이 틀 때」(1927)까지

본명이 신삼순(申三順)으로 알려진 신일선은 1912년 9월 21일 서울 견지동에서 1남 3녀의 막내로 태어나 동덕여자보통학교에서 수학했다. 음악에 소질이 있어 성악가 김형준에게 개인교수를 받기도 했다. 13세 때 오빠가 간부로 있던 김문필 일행의 '조선예술단'에 들어가 댄스와 「옛날의 금잔디(메기의 추억)」 독창으로 득명했다. 그 후엔 오빠 신창운이 조직한 '반도예술단'에서 활동하며 서선(西鮮) 지방을 순회했고, '반도예술단'이 해산된 뒤 '동방예술단', '해동예술단'에서 일했다.[14] 이즈음 전수린이 작곡한 「황성옛터」를 무대에서 처음으로 불렀던 사람이 신일선이라고 한다.[15] 신일선은 함경도에서 흥행 활동을 하던 중 토월회 일행을 만났는데, 거기서 이경손의 눈에 띄어 조선키네마프로덕션의 영화 「아리랑」에 출연하게 된다.[16]

---

14 1933년에 신일선은 오빠에 의해 퇴학을 하고 가극단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지가 사학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항상 극계에 계시는 저의 오빠가 조선예술단이라 하는 가극단을 조직하얐습니다. 그후 오빠는 저를 퇴학시키고 그 가극단에 참가케 하였습니다." 신일선, 「영화계를 떠났던 신일선의 고백」, 『중명』, 제1권 32호, 1933. 8, 124쪽.

15 「황성옛터」, 『경향신문』, 1984.11.30.

16 신일선이 「아리랑」에 출연하게 된 계기, 혹은 신일선의 '발굴'에 대해서는 상이한 기록들이 많다. 최초의 기록들(「조선 영화계 화형 점고 3: 신일선」, 『동아일보』, 1926.10.17; 「조선 영화계 유일의 화형 여우 일문일답: 신일선 양과의 문답기」, 『별건곤』 제7호, 1927.7)에는 이경손만이 언급되고 있으나, 1933년 신일선 본인이 쓴 글에서는 "이경손 감독과 김태진 씨를 만나 서로 의기가 융합되어" 영화계에 진출했다고 말하며(신일선, 위의 글, 125쪽), 1939년 김태진은 '주인규'가 청진에서 신일선을 발견했다고 말한다(김태

「아리랑」 출연 당시 “신홍련”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여기에서 그는 “처녀 출연으로는 놀랄만한 성공이라 하겠으며 그의 용모나 기예는 확실히 조선 여우로서는 누구보다도 영화 배우적 소질을 가장 풍부히 가진 사람,”[17] “일약 영화계의 명여우”가 되었으며 “표정도 유망하고 애교도 상당하며 아직 순결한 처녀 몸에 종달새란 별명을 가진 귀염둥이, 재롱둥이”[18]라는 평가를 받는다.

「아리랑」이 크게 성공하면서 그는 1927년이 ‘신일선의 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작품에 출연하게 된다. 1926년 가을부터 1년간 무려 다섯 편의 영화(「봉황의 면류관」(이경손), 「괴인의 정체」(김수로), 「야서(野鼠:들쥐)」(나운규), 「금붕어」(나운규), 「먼동이 틀 때」)가 더 개봉되었고, 각종 매체에서는 “영화 유사 이래 처음되는 인기,”[19]“일찍이 그 유를 보지 못하리만치 비상한”[20] 인기에 주목하며 신일선에 대한 기사와 인터뷰를 앞다투어 실었다.

또 신일선은 1927년 2월에 개국한 경성방송국(JODK)에서 최초의 라디오 드라마 「명예와 시인」에 출연[21]한 것을 시작으로, 반도여학원 멤버들과 함께 소

진, 「무대는 돌아간다(4): 여배우 무상 부침기」, 『조선일보』, 1939.6.6.). 1959년 기사에서는 “나운규가 함흥까지 달려와” 신일선을 맞아갔다(「흘러간 별들(3): 왕년의 힛트 영화 「아리랑」의 여주인공 신일선 씨」, 『동아일보』, 1959.10.30)고 기록하고 있다. 1970년 신일선 본인의 회고록에서는 당시 문수성 극단에서 일할 때 “토월회 출신의 복혜숙 씨가 나를 보고는 「아리랑」의 여주인공 역으로 적격자라고 춘사에게 귀띔해 줘 춘사가 열차 편으로 부랴부랴 쫓아”왔다며, 문수성의 문수일과 신일선의 오빠가 실랑이를 벌이다가 칼부림이 난 사이에 본인은 나운규와 도망쳤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쓰고 있다.(신일선,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1)」, 『중앙일보』, 1970.11.23.)

한편, 나운규는 자기 자신이 부산에서 신일선의 독창을 처음 목격했고, 훗날 함흥에 가서 그를 데려왔다고 말한다. 「명우 나운규 씨, 「아리랑」 등 자작 전부를 말함」, 『삼천리』, 제9권 1호, 1937.1.

본 논문에서는 최초의 기록들을 존중하여 일단 이경손만을 언급하기로 한다.

17 김을한(영화동호회), 「「아리랑」 6권. 조선키네마 작」, 『동아일보』, 1926.10.7.

18 「조선 영화계 화형 점고 3: 신일선」, 『동아일보』, 1926.10.17.

19 나웅, 「사라진 명우 군상, 생각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 『삼천리』, 제10권 11호, 1938.11.

20 「일시 소문 높던 여성의 최근 소식(7): 영화계의 화형 신일선」, 『조선일보』, 1928.1.9.

21 양훈은 「라디오 드라마 예술론: 그 미학 수립을 위한 일 시론」(『동아일보』, 1937.10.13.)에서 “라디오 드라마란 명목하에 방송한 것이 소화 2년 2월 21일 이소연, 신일선 출연의

녀 창가극, 소녀 합창극, 드라마 단막극 등을 선보였으며 창가극 등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행사에서 공연했다.[22] 5월에는 신극단체 '산유화회' 단원으로 이름을 올리고[23] 6월에는 나운규, 이경손과 함께 신극단 '백양회' 조직에 참여한다.[24] 7월에는 "조선 최초의 방송 영화극"으로 「금붕어」를 실험하는데, 방송영화극이란 "어떠한 영화를 제작 출연한 영화 배우들과 어떠한 상설관의 해설자와 관현악단이 협력하여 해설자는 영화 설명을 하듯이 자막과 동작을 설명하고 남녀 배우는 무대극을 방송하듯이 '세리푸[대사]'를 방송하며 관현악단은 그 영화에 알맞은 반주를 하여 가장 교묘히 라디오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시험"이라 설명된다.[25] 나운규가 감독한 「금붕어」는 7월 6일에 개봉했고, 방송 영화극 「금붕어」는 영화에 출연했던 나운규, 신일선, 김정숙 외 10여 명의 배우들과 변사 김영환이 D.S.관현악단과 함께 작업하여 7월 8일에 방송되었다.[26] 또 영화 「금붕어」는 상영 전에 배우들이 등장하여 "프롤로그"를 공연하여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27] 한편, 신일선이 「괴인의 정체」와 「금붕어」를 촬영하면서 부상과 사고를 당했던 사건[28]은 큰 화제를 모았다.

「명예와 시인」을 효시로" 한다고 말하는데, 정확한 방송일은 2월 21일이 아니라 28일이다(『조선일보』 1927년 2월 28일자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참조). 한편, 이 드라마에 신일선과 함께 출연한 이소연은 토월회 출신의 배우로, 영화소설 『백의인』에서 주인공 기호 역을 맡아 신일선과 함께 실연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22 『조선일보』, 1927.2.24.; 『매일신보』, 1927.2.28.; 『조선일보』, 1927.3.5.

23 『조선일보』의 기사(「사계의 유지를 망라하여 산유화회를 조직」, 1927.5.8.)에 의하면 '산유화회'는 "전 토월회원 몇 사람과 극계 유지 몇 사람들의 협력으로 새로 조직된 극운동 단체"로서 박진, 이소연, 박제행, 신일선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5월 20일 조선극장에서 「향토심」 3막과 번역 각본 「소낙비」 1막을 상연하는데, 여기에 신일선은 출연하지 않았다.

24 '백양회'는 8월에 '종합예술협회'와 합동하고 10월에 「뺨맞는 그 자식」, 「결혼신청」을 레퍼토리로 제1회 공연을 하는데, 신일선은 출연하지 않았다.

25 「조선 최초의 방송영화극」, 『매일신보』, 1927.7.5.

26 위의 글; 「라디오 프로그램」, 『조선일보』, 1927.7.8.

27 「금붕어 상연에 '푸로로—구' 시연」, 『조선일보』, 1927.7.6.

28 신일선은 당시에 이렇게 설명한다. "그동안에도 벌써 두 번이나 죽을 뻔 하였답니다. 「괴인의 정체」라는 것을 박힐 때 북악산 도선암까지 기어 올라가서 높다란 바위에서 뛰어 내리다가 잘못되어 머리가 터지고 인사불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때에 흠집이 지금껏 이마 위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번 「금붕어」를 박힐 때에 한강에 나갔다가 물에 빠져서 한동안 죽었

그런데 이 '열기'가 절정을 향해 치닫던 1927년 여름, 그는 16세의 나이로 갑자기 결혼을 발표한다. 이 결혼에 대한 당시 언론의 떠들썩한 호들갑과 1933년 신일선이 컴백한 후 '고백'했던 내용,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흐른 뒤 신일선이 회고하는 내용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 신일선의 약혼 소식을 듣고 그의 집에 찾아간 한 기자는 "그의 재주를 사랑하던 키네마팬들에게는 다시 없는 비보가 되는 것이다. 그는 곧 영화계의 공유로 있던 우리 신일선 양이 어느 일개 청년의 사유물로 되어버리는 것이다. 좀 억지의 논법 같기도 하나 이렇게 따져 나아가면 그의 재주를 사랑하고 그리던 키네마팬들은 일종 피해자격으로 된다."[29]고 흥분하고, 신랑감이 전라도 부호이자 유부남 양승환이라는 데 대해 각종 매체에서는 "꽃같이 피어나는 한 몸을 돈과 바꿔 간다,"[30] "오빠가 돈을 받고 누이를 팔려는 것"[31]이라는 프레임을 만들며 각종 가십과 루머를 생산해 냈다. 그중에서도 여러 차례 팬들, 즉 "신일선당"을 향하여 애통한 어조로 가십거리를 만들어냈던 『중외일보』의 연재 기사는 매우 선정적이었다.[32]

이 결혼에 대해 당시에 신일선이 직접 언급한 내용은 없었고,[33] 1933년 컴백

다가 요행으로 살아났지요." 「조선 영화계 유일의 화형 여우 일문일답」, 『별건곤』 제7호, 1927.7.

29 「영화계의 비극, 신일선 양의 약혼: 팬 제군에게 제1회 보고」, 『매일신보』, 1927.8.6.

30 「양에게 처자가 있어도 못갈 것은 없습니다!; 신일선 제2회 방문기」, 『매일신보』, 1927.8.25.

31 신일선,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9)」, 『중앙일보』, 1970.12.2.

32 「혜성 신일선, 운무(雲霧)에 가릴 때까지」 시리즈(총 4회, 『중외일보』, 1927.8.8.-11.)를 말한다. 신일선의 가계 형편을 소개하며 그의 결혼이 "과연 그의 뜻에서 나온 것일까?"라고 분개하는 한편, 알고 보면 신일선에게는 숨은 애인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이름과 연애편지 전문까지 게재하고 있다. 그러면서 신일선의 결혼을 결국 "사랑을 좇을까? 집안을 위할까?"라는 통속적인 관심사로 환원시켜 버린다.

33 그가 기자와 아래와 같은 문답을 나누었다는 기사(「양에게 처자가 있어도 못 갈 것은 없습니다!; 신일선 제2회 방문기」, 『매일신보』, 1927.8.25.)가 있으나, 신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기자 들으니까 양 군은 아내도 있고 아해도 있다는데.

일선 아해까지 있어요.

기자 그럼! 그래도 가겠소.

일선 그렇다고 못 갈 것이야 있나요.

후 '고백' 형식으로 쓴 글과 1970년의 회고록에서 다소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신일선의 팬이었던 양승환과 신일선 사이에 중매 역할을 한 사람이 박덕양인지 심영인지 기록상 차이가 나는 것은 기억의 오류라 쳐도, 양승환을 처음 만나 약혼한 후 "양 씨의 편지만은 자꾸 기다려"졌고 "아마 양 씨를 사랑"하게 된 것 같다고 회고하는 1933년의 고백[34]과, 당시 영화 출연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살림이 어려웠으며 오빠는 술과 도박에 빠져 이미 양승환으로부터 "큰 기와집과 거액의 돈까지 받아 결혼 날짜까지 받아버"리며 신일선을 감쪽같이 속였다는 1970년의 기록[35] 사이에는 매우 큰 격차가 있다. 어떤 내용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결혼 당시 언론에서는 1970년 기록의 내용에 가까운 소문이 우세했다(각주 30-32 참조). 어쨌든 그의 팬들은 큰 충격을 받아서, 수십 명이 몰려가 "신일선이 나오라"며 대문을 두드리고 아우성을 쳤고, 그를 저주한다는 항의 편지를 수십 통씩 보냈다고 한다.[36]

그리하여 심훈 원작, 감독의 「먼동이 틀 때」는 신일선의 결혼을 둘러싼 이 폭발적인 관심 속에서 촬영을 개시하고 개봉하게 되었다. 당시 『조선일보』에 소개된 경개[37]와 1965년에 공개된 콘티[38]를 보면 신일선은 식당의 여급으로서 "일금 200원에 팔려 온 안병수의 누이동생 순이" 역을 맡았다. 오빠 안병수가 순이가 번 돈을 갈취하고 식당 손님들이 순이에게 치근거려도, 그 애인인 가난한 시인 영희(한병룡 분)는 무기력하다. 이때 3.1운동으로 수감되었다가 출옥한 광진(강홍식 분)이 우연히 만난 순이에게 잠시 연정을 느끼기도 하지만, 결국 자신이 절도한 돈을 이 젊은 커플에게 주어 멀리 떠나게 해준다. 영화 자체는 "「아리랑」이 시골에서 성공한 작품이라 할 것 같으면 이 「먼동이 틀 때」는 도회에서 확실

기자 당신의 재주를 사랑하던 팬들의 기대가 무참히 깨져버리는 게 아깝지 않소.
일선 황송합니다.

34 신일선, 「영화계를 떠났던 신일선의 고백」, 『중명』, 제1권 32호, 1933. 8, 126쪽.

35 신일선,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9)」, 『중앙일보』, 1970.12.2.

36 신일선, 위의 글.

37 「심훈 원작·감독, 「먼동이 틀 때」 경개」(2),(3), 『조선일보』, 1927.10.27.-28. 경개 1회차 지면은 유실되었다.

38 「콘티 「먼동이 틀 때」」, 『사상계』, 1965.9.

히 성공한 작품"[39]이라며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신일선의 연기는 별 주목을 끌지 못했다.[40]



[그림 4] 「먼동이 틀 때」의 한 장면: "드러누운 이가 강홍식, 단발한 이가 김정숙, 양장한 여자가 신일선이요, 옆에 앉은 이가 한병룡," 『매일신보』, 1927.9.3.



[그림 5] 「계림영화 시작품 「먼동이 틀 때」 촬영 개시: 신일선과 한병룡 씨」, 『조선일보』, 1927.9.3.

1927년 11월 마침내 신일선이 결혼한 후에도, 일간 신문에서는 "애기를 배었다는 소문의 소문"[41], "신일선 프로덕션"을 만들고 있다는 계획[42], 그리운 서울을 찾아 도망을 하다가 그만 추격하는 양승환에게 붙잡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혹은 남편에게 잡혀 엄중한 감시를 받는다는 말을 들은 신일선의 오빠가 담판하여 신일선을 데리고 경성으로 올라왔다[43]는 소문 등을 그의 사진과 함께 꾸준히 기사화했다. 영화산업 내에서도 신일선의 빈 자리는 흔적을 남겨서, 「아리랑 후편」

39 서광제, 「조선영화 소평(2)」, 『조선일보』, 1929.1.30.

40 "…이 작품에 신일선 양은 최후로 출연하고는 전라도로 시집을 갔는데 마음이 딴 곳으로 옮기였던가 들창에서 내다보고 미소한 장면이 어색했었다." 「명화에 숨은 로맨스(4): 제15화 「먼동이 틀 때」」, 『조선일보』, 1938.11.17.

41 「신일선 양의 일대 걸작, 애기를 배었다는 소문의 소문」, 『매일신보』, 1928.4.29.

42 신일선이 임신 6개월임을 알리는 기사에서는 그 남편의 입을 빌어 신일선이 출산 후에는 호남의 산수를 배경으로 "일대 인정활비극"을 만들 계획이며 "각본은 목하 신 자신이 집필 중"이라고 전하고 있다. 「호남의 풍경을 좇아 신일선 자작 주연: 신일선이가 애만 낳으면 활동사진을 다시 박는다」, 『매일신보』, 1928.5.27.

43 「정없는 임 두고 떠나면 천리를 걸어도 발병 안나: 양승환을 영영 떼어 던지고서 서울로 올라오도록 발병 안 난 신일선의 최근 소식」, 『중외일보』, 1928.10.9.

(이구영, 1930)은 신일선 없이 제작되었고 1928년 개봉한 「유랑」(김유영)은 임화의 상대역을 맡은 신인 여배우 조경희를 홍보할 때 "제2의 신일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44]

2.2 스타 이미지의 좌표

2.2.1 영화소설의 실연 사진과 스타덤

「아리랑」과 「봉황의 면류관」이 개봉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신일선은 두 편의 영화소설의 '실연(實演) 사진'에 연달아 출연하게 된다. 1927년 1월 20일 ~ 4월 27일 『백의인』(이경손), 5월 10일~9월 11일 『승방비곡』(최독견)에서 주인공을 연기하면서다.[45]



[그림 6] 『승방비곡』 4회 연재분. 마지막에 실연 사진의 배역을 명시하고 있다. "김은숙-신일선, 이영일-주삼손."

『백의인』은 『조선일보』에 연재될 때 거의 매회 실연 사진을 실었다. 하지만 이 작품이 영화화될 계획이라든가 영화화되었다는 기록은 없고, 1931년 영창서관에서 단행본으로만 출간되었다. 반면 연재 예고부터 나운규 및 조선키네마프로덕션에서 실연 사진을 제작하여 실을 예정임을 알렸던 『승방비곡』은, 촬영 도중

44 「문사 등 출연: 「유랑」의 제작 진보」, 『중외일보』, 1928.1.19.

45 얼핏 『백의인』의 여주인공은 '수자'역을 맡은 김정숙과 '정애'역의 신일선으로 양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연 사진의 분량 면에서 볼 때는 주요 인물 5인 중 신일선이 전체의 1/3을 차지하고 있어, 명실공히 시각적 이미지상의 주인공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백의인』에 대해서는 백문임 외 엮고 씀, 『키네마: 영화소설과 시나리오 2』(보고사, 근간) 참조.

혹은 직후에 영화로 만들려는 계획 속에서 연재가 진행되었다.[46]

주지하듯 조선에서 연재 소설에 삽화 대신 실제 배우들의 실연 사진을 넣기 시작한 것은 1926년『탈춤』(심훈)부터였다. 이 작품은 바로 몇 달 전 개봉한 영화「아리랑」의 캐릭터 유형과 배우들을 그대로 가져와, 선량한 커플을 위해 악한을 처단하는 영웅이자 광인 강흥렬(나운규 분), 음악을 사랑하는 지식인이자 로맨스의 주인공 오일영(남궁운 분), 여주인공을 겁탈하려는 부르주아 악인 임준상(주인규 분)으로 구성했다. 결국 제작비 등의 문제로 영화화가 좌절되어『탈춤』은 영화소설로만 남게 되었는데, 이 작품에서 시작된 '실연 사진의 삽입'은 영화소설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특징으로 인지되었다.『동아일보』의『탈춤』의 연재가 끝나자마자『조선일보』에서는 실연 사진을 넣은 영화소설『백의인』과『승방비곡』을 연달아 연재하는데, 두 작품에 모두 등장했던 배우는 신일선이 유일하다.



[그림 7]『백의인』(1927.3.4.) 바이올린을 든 정애(신일선)



[그림 8]『승방비곡』(1927.5.19.) 만돌린을 켜는 은숙(신일선)



[그림 9]『승방비곡』(1927.5.12.) 성악가 은숙(신일선)의 독창 무대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것은, 영화소설의 실연 사진에는 연재 소설의 삽화와는 다른 하나의 층위, 즉 '실제 배우'라는 층위가 더해진다는 사실이다. 예컨대『백의

46 신일선은 나운규가 영화화하려 했던 영화소설『승방비곡』이 "요즘처럼 삽화를 넣지 않고 매회 스틸사진을 찍어 삽화를 대신했었다. 물론 촬영을 나 선생이 맡았고 내가 여주인공으로 등장했었다. 이 스틸사진은 신문 독자들에게 꽤 인기가 있었다."고 회고한다.(신일선,「남기고 싶은 이야기들(9)」,『중앙일보』, 1970.12.2.) 그런데『승방비곡』의 영화화는 1930년에야 이루어졌고, 이미 은퇴한 신일선은 거기에 출연하지 않았다. 조선키네마프로덕션에서 탈퇴한 나운규 역시 이 영화와는 무관해졌다.

인』의 실연 사진에서 보여지는 인물은 소설 속 캐릭터 정애인가, 배우 신일선인가? 연재가 시작되기 얼마 전 공개되어 화제를 낳은 영화 「아리랑」 혹은 「봉황의 면류관」을 보았거나 소문을 들은 독자에게라면, 정애는 소설 속 캐릭터로서보다는 먼저 배우 신일선으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높다. 소설 속 캐릭터가 우선하고 그것을 시각화하는 기존 삽화와 달리, 실제 배우의 실연 사진은 "정애: 신일선"과 같이 '특정 배우'가 어떤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즉 실연 사진을 동반한 영화소설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캐릭터보다 배우 자신이 더 강하게 어필되는 효과다.

소설의 캐릭터 구성과 비교하며 영화에서의 '스타'를 분석한 리처드 다이어는, 소설적 캐릭터 개념과 구별되는 영화 스타의 특성 중 하나로 "동일성(sameness)"을 지적한다. 즉 스타가 여러 작품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할 때, 이 캐릭터들이 아무리 상이한 줄거리와 배경 속에서 그려진다 하더라도, 인지와 동일시를 위해 스타는 동일한 것으로 머무른다는 것이다. 마치 호머의 작품에서 오디세우스가 "매우 다양한 역할을 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공식적인 통명(formulaic epithet)에 의해 지시되는 동일하고 고정된 단순한 캐릭터"로 남아 있는 것처럼 말이다.[47] 신일선은 불과 몇 달 전 「아리랑」으로 데뷔한 16세 소녀였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 1927년에는 조선의 대중매체를 통해 가장 화제성이 강한 스타로 떠올랐다. 2-3개월에 한편씩 출연 영화가 개봉했고 방송과 무대 활동을 계속 했으며, 8월경 터진 결혼설로 그야말로 "신일선당," "신일선종(宗)"이라 불리던 팬들을 들끓게 만들었다. 이런 스타덤의 형성에는 1월부터 9월까지 일간지에 연재되던 영화소설의 실연 사진도 적지 않은 역할을 했을 것이다. 지면 구성상 실연 사진을 먼저 보고 소설을 읽게 되기 때문에, 영화소설에서 배우 자신은 캐릭터보다 더 즉각적으로 인지된다. 첫째, 작가들 역시 이 사실을 인지하고 창작을 했기 때문에, 소설의 구상과 창작 과정 전반에 걸쳐 신일선이라는 배우의 "동일성"은 유지되고, 둘째, 독자들 역시 배우 신일선에 대한 선지식 혹은 외양이 주는 인상과 더불어 정애(『백의인』)와 은숙(『승방비곡』)이라는 캐릭터를 읽어가게 된다. 즉 작가의 생산과 독자의 읽기 과정 모두에 신일선이라는 "동일성"이 영

47 리처드 다이어, 주은우 역, 『스타 - 이미지와 기호』, 한나래, 1995, 182-183쪽.

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실연 사진을 첨부한 영화소설의 캐릭터는 배우의 이미지와 결합되어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소설과도 다르고 영화와도 다른 장르로 초기 영화소설을 특징짓게 만든다.

그래서 『백의인』과 『승방비곡』은 작가와 스토리, 문체와 주제의식 등 모든 면에서 상이한 작품이지만, 1927년에 가장 뜨거운 스타로 떠오르던 신일선을 매개로 여주인공 캐릭터를 구성했고 또 역으로 그렇게 독자들과 소통함으로써 신일선의 스타덤 형성에 기여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여학교를 다니던 중 경식을 만나 그를 따라 동경에 가기 위해 자퇴를 하고, 경식에게 배신당해 연극 배우 일을 하고, 다시 경식을 만나지만 마약과 임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백의인』의 정애. 고고한 성악가로서 영일과 결혼하려던 순간 영일과 자신이 이부(異父) 남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승방비곡』의 은숙. 둘 사이에는 신일선을 염두에 두고, 혹은 신일선으로부터 출발하여 창조된 캐릭터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림 7-9]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데 재능이 있었던 신일선의 "비이클(vehicle:특정 배우의 능력과 매력, 이미지 등을 잘 나타낸 영화)"[48]과 같은 장면들이다. 마치 진 켈리[49]를 위해 긴 발레 시퀀스를 설정하는 것처럼, 신일선을 위해 두 작품에 모두 바이올린(만돌린)을 켜며 노래하는 장면들을 넣고 『승방비곡』에서는 아예 은숙의 직업을 유명 성악가로 만들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2.2.2 '순결한 처녀' vs "까불까불 유쾌하게 뛰노는 인물"

더욱이 『백의인』의 작가는 신일선을 발굴하고 후원했던 감독 이경손이며, 『승방비곡』을 영화화할 '감독'으로서 실연 사진 촬영을 맡고 있던 사람은 역시 신일선을 발굴하여 「아리랑」에서 호흡을 맞추었던 나운규다.[50] 신일선의 가장 든든

48 리처드 다이어, 위의 책, 125-126쪽.

49 Gene Kelly(1912-1996). 「사랑은 비를 타고(*Singin' in the Rain*)」(1952)로 유명한 뮤지컬 배우.

50 자신을 "진정으로 위해주고 진정으로 잘 지도해 주려는 후원자는 누가 있습니까?"라는 기자의 질문에 신일선은 친오빠 외에 "이경손 씨하고 나운규 씨"가 있다고 답한다. 「조선 영

한 지원자로서 이경손과 나운규는 '조선의 메리 픽포드'인 신일선과 1927년 6월 '백양회'를 조직하면서 마치 찰리 채플린, 더글라스 페어뱅크스와 그 아내 메리 픽포드가 결성했던 '유나이티드 아티스츠'와 같은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그림 10,11]



[그림 10] '유나이티드 아티스츠'를 결성한 찰리 채플린, 메리 픽포드, 더글라스 페어뱅크스(좌로부터). https://filmstarpostcards.blogspot.com/2018/12/photo-by-united-artists.html [최종 접근: 2025.4.6.10;42A.M.]


新組織劇團
白羊會

[그림 11] 신극 단체 '백양회' 조직을 알리는 기사: 사진은 우로부터 신일선, 나운규, 이경손.『동아일보』1927.6.12.

그렇다면 이경손과 나운규, 최독견은 신일선의 어떤 이미지를 활용하여 정애와 은숙 캐릭터를 만들었는가, 혹은 신일선의 스타 이미지를 만드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가, 나아가 신일선 자신은 이 캐릭터들 및 본인의 스타 이미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 (1) (…) 여우(女優)로는 선천적 결점이 적지 아니하나 (표정은 누구나 다 없었으니까) 말할 것이 못되고 그중「부활」에 옥중생활에 나타난 그의 예풍은 여간 소인 배우로는 흉내도 내기 어려울 것이다(순결한 처녀다운 기분을 드러냄에는 전연 실패를 하였으나).[강조-인용자][51]

화계 유일의 화형 여우 일문일답」,『별건곤』제7호, 1927.7.

51 심훈,「미래의 극단을 위하여 - 토월회 2회 공연을 보고」, 동아일보 , 1923.10.7.

(2)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가? 미모와 특히 스크린에 나타나는 그의 낯이 재래의 여배우 중에서는 걸출 된 것도 치려니와 무엇보다도 그의 제일 큰 인기는 그 순결일까 한다. 본시 여배우란 어느 나라를 물론하고 정조를 굳게 지킨다는 말은 못 들었으나 그것은 예술가의 인간적 생애를 도외시하는 곳의 말이지, 여성의 인격을 좌우할 수 있는 정조가 흔들려서야 그의 명망은 그만 땅에 떨어지고 말 것은 사실이며 이미 토월회 전성시대의 모모 여배우가 재주는 지금의 신일선의 몇 배 뛰어나기도 했으나 신일선만큼 인기가 적었다는 것은 그것은 곧 그의 품격을 한층 낮추어본 것이다. 그러하므로 나는 오늘날 신일선의 인기의 원동력은 아직 그가 어리며 그의 일신은 옥과 같이 깨끗하여 아직은 한낱의 추문일지라도 세상에 흩어내지 않는 데 있지나 아니한가 한다. (…) 나는 아직 그와 인사도 없는 이때 장담을 해둔다. 만일 그가 두 번 세 번 재래 여배우와 같은 추문만 흘리게 되면 그의 인기는 땅에 떨어지고 말 것이라고.[강조-인용자][52]

인용문 (1)은 토월회의 「부활」 공연에서 카츄샤 역을 맡았던 이월화에 대한 평이고, (2)는 그 이월화에 비해 "재주"는 몇 배 떨어지지만 인기는 훨씬 많은 1927년 초의 신일선에 대한 평이다. '최초의 여배우' 중 하나로 독보적인 지위를 쌓았던 이월화와 달리 신일선은 이제 막 「아리랑」과 「봉황의 면류관」 두 편에 출연한 신인이었다. 여기에서 평자들이 동일하게 "순결"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점, 이월화는 "실패"했던 그것이 신일선의 "옥과 같이 깨끗"함으로 성취되었으며 "제일 큰 인기"의 비결이라고 말하는 점에 주목하자. 그리고 이것은 캐릭터들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배우 개인에 대한 평이라는 점도 기억하자. 특히 (2)의 필자 이서구가 강조하는 것은 이월화의 몇 가지 스캔들이고, 신일선이 아직 어려서 그런 성적인 "추문"이 없이 "순결"하다는 점이다. 이 태도에는 신일선이 다른 여배우들과는 달리, "여성의 인격을 좌우할 수 있는 정조"를 굳게 지키기를 바라는

52 이서구, 「내가 본 신일선」, 『매일신보』, 1927.3.11.

조바심같은 것마저 엿보인다.[53] 한마디로 어리디 어린 '처녀 여배우'의 등장에 방점을 찍는 반응들인데, 이는 이서구도 언급하듯 이월화와 같은 "재래 여배우"에 대한 세간의 편견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고, 이후 신일선의 결혼 소식에 대한 반응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듯, 여성 배우의 섹슈얼리티를 관리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태도이다. 그리고 얼핏 열광과 숭배의 대상인 것처럼 보이는 이 '순결'은 집착의 대상이 됨으로써 신일선을 성애화시킨다.

조선 영화계는 그래서 신일선의 이 "순결"한 이미지를 보호하거나 추앙하는 대신, 마치 시험이라도 하듯 그것이 폭력적으로 훼손될 위기를 끊임없이 창작해 냈다. 영희(「아리랑」), 은숙(『승방비곡』), 은애(「야서」)는 (돈 많은) 악한에게 겁탈당하거나 그와 혼례를 치를 위기에 놓이고, 「괴인의 정체」의 홍보 사진[그림 14]과 『승방비곡』의 실연 사진들[그림 12, 13]은 신일선의 캐릭터가 물리적으로 '납치'당하는 장면, 위기에 처한 장면을 선정적인 구도로 묘사하고 있다.



[그림 12] 『승방비곡』 35회 (1927.6.18.): 괴한들에게 납치당하는 은숙



[그림 13] 『승방비곡』 45회(1927.6.30.): 필수의 폭력 앞의 은숙



[그림 14] 「괴인의 정체」의 "괴인과 영옥," 『동아일보』, 1927.2.12.

이것은 서사적으로는 그녀를 구출하고 악한을 응징하는 남성 영웅의 액션을 전개할 동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아리랑」, 『승방비곡』, 「야서」에서 이 영웅은 나운규가 연기했다), 이미지상으로는 "순결"의 취약성을 강조하는 관음증적 스

53 이런 조바심을 보이는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은 코멘트이다. "신일선-이 작은 아씨는 여전히 순진 그것이다. 해수욕도 모르고 공원 산보도 모르고 오직 경애하는 오라버니에게 매달려 다닌다. 하나 피는 꽃, 흩어져가는 향기는 이성의 번뇌를 일으킨다. 끝까지 순진하거라," 「극단편신」, 『매일신보』, 1927.7.27.

펙타클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시기 형성되고 있던 조선 무성영화의 전형과 서사적 관습, 특히 '액션 영웅'이 '악한'으로부터 '순결한 여성'을 구해낸다는 도식은 아슬아슬한 위기의 순간을 선정적으로 시각화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했기 때문이다. 식민지 조선의 문화산업이 할리우드에서와 같은 스타 시스템을 운용할 정도로 무르익지는 않았지만, 스타 시스템의 이점, 즉 유형화될 수 있어서 이해하기 쉬운 공식을 제공하여 "선전하고 팔 수 있"는 "표준화된 생산품"으로 이윤을 얻는다는 장점에 대한 감각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즉 할리우드의 "사악한 악당, 정직한 영웅, 섬뜩한 마녀, 상냥하고 젊은 아가씨, 신경질적인 여자 등" 전형[54]에 대응하는 조선 영화의 전형으로 '순결한 처녀'가 만들어지고 있었으며, 여기에 신일선의 등장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혹은 그 역일 수도 있겠다.) 그는 등장하자마자 열렬히 사랑받고 또 탐욕스럽게 소비되었으며, 갑자기 결혼을 발표했을 때는 지독한 멸시와 저주를 받았다. 이런 점에서 신일선은 명실공히 '조선영화 최초의 여성 스타'였다고 할 수 있다.

(1) 마음이 어린 탓인지는 몰라도 저는 웃음과 활발한 것이 뒤섞인 희활극이 좋아요. (…) 저는 언제든지 보기만 하여도 가슴이 뛰고 통쾌한 작품에 한 번 수연해 보고 싶어요. 제가 출연한 작품으로는 「아리랑」과 「봉황의 면류관」의 두 편이 있는데 남들은 「아리랑」에 출연한 것이 낫다 하나 저의 성격으로는 「봉황의 면류관」이 맞는 거 같아요. [강조-인용자][55]

(2)

記[기자-인용자] 제일 싫은 때는요.

仙[신일선-인용자] 가령 처녀로 혼자 있을 때 같은 때에 애인 아닌 남자가 달려드는 장면 같은 것을 할 때가 제일 마음에 싫

54 H. Powdermaker, *Hollywood, The Dream Factory*, pp.228-9, 리처드 다이어, 앞의 책, 34쪽에서 재인용.

55 신일선, 「내가 좋아하는 배우 레지날드 데니」, 『조선일보』, 1927.1.19.

어요. (…)

記 제일 힘이 드는 것은 어느 때인가요.

仙 못된 사람에게 붙들려 가지고 뿌리치고 달아나려 하는 것을 할 때가 제일 힘이 들고 고생되어요. 가령 「아리랑」 중 지주의 집 마름 녀석(주인규 연(演))이 덤벼드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뿌리치려고 애쓰는 것을 박힐 때가 제일 고생되어요(…)

記 그럼 당신 생각에 당신에게 제일 적합한 노릇은 무엇일까요.

仙 좀 우습지만 까불까불 유쾌하게 뛰노는 인물이 제게는 맞아요. 아마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봐요.[강조-인용자][56]

짧은 기간에 형성된 본인의 스타 이미지에 대해 신일선은 꽤 활달하게, 「아리랑」의 농촌 소녀보다는 「봉황의 면류관」에서 언니의 애인을 짝사랑하는 "15살 먹은 어린아이"[57]의 캐릭터 혹은 "까불까불 유쾌하게 뛰노는 인물"이 더 자신에게 맞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게 요구되었던, '순결한 처녀'를 위협받는 폭력적인 장면들이 "제일 마음에 싫"고 "제일 힘이 들고 고생"된다고 답한다. 어쩌면 그는 당시 자신을 둘러싼 관음증적 스펙타클의 메커니즘을, 그리고 '스타'라는 상품의 한계를 이미 눈치채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3 제2기: 컴백 후 두 번째 은퇴까지 (1933-1938)

3.1 음반 활동: 「지나간 그날」(1933)을 중심으로

떠들썩한 결혼과 함께 은퇴했던 신일선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은 6년이 지난 1933년 5월, 그가 22세 때였다. 그간 남편 양승환은 미두에 손을 댔다가 파산하면서 아편 중독자가 되었고 신일선은 두 아들을 데리고 시동생 집에 얹혀사는 신세였다. 신일선은 양잿물을 마시는 등 음독 시도를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친정어머니가 내려온 틈을 타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와 버렸다고 한다.

56 「조선 영화계 유일의 화형 여우 일문일답」, 『별건곤』 제7호, 1927.7.

57 「「봉황의 면류관」 경개」, 『동아일보』, 1926.10.29.

그는 이때 이혼을 한 것으로 보이며,[58] 얼마 후 아이들은 남편이 데려가 버렸다. 1933년 7월에 신일선은 박제행과 함께 폴리돌 회사에서 음반을 취입하기로 했고, 1934년부터는 오케 레코드 전속으로 활동했다.[59]

그런데 그가 폴리돌 및 오케 레코드 회사에서 일하기로 한 것은 좋은 타이밍을 잡은 것이었다. 마침 그때는 "모든 오락예술이 다 위축해 있지마는 오직 레코드만은 다소 윤택"[60]했던, "레코드 예술가의 황금시대"[61]라 불릴 정도로 빅터, 콜롬비아, 폴리돌, 시에론, 태평, 오케 등 6개 회사에서 많은 음반을 출시하고 또 그것이 잘 팔리던 때였다. 이애리수, 최남용, 전옥, 김선초, 왕수복, 이난영 등의 가수 뿐만 아니라 신불출과 같은 만담가의 음반도 인기가 있었다. 신일선은 1933년 9월부터 폴리돌 회사에서 「지나간 그날」 등의 극과 난센스 음반을 취입하고 순회공연을 했고, 1934년에는 오케 레코드에서 「낙랑공주와 마의태자」 등의 극, 난센스, 스케치 음반을 취입하고 1935년 초순까지 전 조선과 중국 등지를 순회하며 오케 레코드 가수들의 "실연음악회," "실연의 밤" 공연에 참여했다. 당시 레코드 무대에서 대단한 인기를 누린 여성 예술인으로 윤백단, 나품심, 신일선, 신은봉이 거론되는데,[62] 1930년대 11명의 여배우의 유성기 음반 활동을 연구한 신수정에 의하면 극음반을 가장 많이 취입한 사람은 나품심과 전옥, 김연실 등이었고 노래 음반을 가장 많이 취입한 배우는 전옥과 이애리수였다.[63] 신일선은 1933년 가을부터 1934년 10월까지 총 35면, 20편의 극음반을 취입했고, 노래 음반은 취입하지 않았다.[64] 신수정이 정리한 신일선의 음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58 그는 "남편과는 손을 끊고 어린 것들을 데리고 독립생활을 하려고 결심했습니다."라고 말한다. 「은막의 여왕 신일선 재현」, 『매일신보』, 1933.5.7.

59 그런데 1970년의 회고(신일선, 「무성영화 시대: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11)」, 『중앙일보』, 1970.12.4)에서 그는 폴리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오케 레코드 "서울지사 이철이 레코드를 제안했다"고만 말한다.

60 「예원에 빛나는 조선의 딸들: 왕년의 화형 여우 신일선 양」, 『매일신보』, 1934.1.3.

61 「6대 회사 레코드전」, 『삼천리』 제5권 제10호, 1933.10.

62 「김은신의 이것이 한국 최초(39): 여성 코미디언 김윤심」, 『경향신문』, 1996.8.24.

63 신수정, 「1930년대 여배우의 유성기 음반 활동 연구」, 『음악과 현실』 제52호, 민족음악학회, 2016.

64 몇 년 후 신일선은 "레코드 회사의 청으로 몇 장 넣어보았는데 나는 아마 음악에는 천재가

발매연월	음반	극명	홍보된 장르명
1933.11	Polydor19090/A	신식구식	난센스
1933.11	Polydor19091/B	정전	난센스
1933.11	Polydor19091/A,B	지나간 그날	극
1933.12	Polydor19097/A,B	미리엘승저	극
1934.1	Okeh1609/A,B	신일선전(傳): 무너진 아리랑 -불출(不出)편	극＋노래
1934.1	Okeh1611/A,B	소문만복래	스케치
1934.1	Okeh1614/A,B Okeh1615/A,B	낙랑공주와 마의태자	비사극
1934.2	Polydor19113/A,B	자장가	극
1934.3	Polydor19119/B	안되는 놈	난센스
1934.4	Okeh1644/A,B	홍길동전:출가편	사전(史傳)비극
1934.5	Polydor19131/A,B	사위모집	난센스
1934.6	Okeh1675/A	털보	난센스
1934.6	Okeh1675/B	괘사불여귀	난센스
1934.6	Okeh1676/A,B	무정세월	비극
1934.7	Okeh1680/A,B	계란강짜	난센스
1934.8	Okeh1690/A,B	해수욕장 풍경	스케치
1934.9	Okeh1700/A,B	빙산의 비밀	알프스 비화
1934.10	Okeh1708/A,B	적막한 인생	비극
1934.10	Okeh1709/A	여순사가 난다면	난센스
1934.10	Okeh1709/B	울고 갈 길 왜 왔나	민요극

[표 3] 신일선의 유성기 음반 취입 목록
(신수정,「1930년대 여배우의 유성기 음반 활동 연구」, 2016, 122-123쪽)

없나 봐요."라고 말한다.「장한가 부르는 박행(薄倖)의 가인 신일선」,『삼천리』제9권 제4호, 1937.5.

신일선이 박제행, 왕평, 신불출, 김창배, 나품심, 성광현 등과 같이 출연한 이 음반의 극들을 분석하는 것은 차후의 과제로 미루어야겠으나,[65] "영화 「아리랑」에서"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왕평 안(案)의 극 「지나간 그날」(1933.11)에 대해서는 언급해 두어야 하겠다. 신일선이 (박제행 혹은 왕평이 연기하는) "청년"과 함께, 1926년도 「아리랑」에 삽입되었던 극중극(劇中劇) 「카츄샤」를 연기하기 때문이다. 몇몇 연구자들이 지적했듯 나운규의 「아리랑」에는 일종의 서브-텍스트로 톨스토이의 『부활』 중 '카츄샤의 이별 장면'이 언급되어 있고, 실제 영화가 상영될 때는 극중극 형식으로 공연도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66] 우수진은 톨스토이의 『부활』(1899)이 "원전 자체보다도, 재구성 번역 및 속편과 연극, 유행가요 등을 통해 재/생산되는 대중 서사를 중심으로" 대중적인 유명세를 얻었다고 말하며, 이때 핵심이 되었던 것은 카츄샤의 사랑 이야기였다고 분석한다. 특히 소설 『부활』이 번역되기 전에 공연되었던 1916년 예성좌의 연극 「카츄샤」는 『부활』이 '카츄샤 이야기'로 알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1923년 토월회의 공연은 이월화와 안석영의 연기로 화제가 되었다.[67]

영화 「아리랑」은 최영진의 친구이자 대학생인 현구(남궁운 분)와 영희의 사랑을 묘사하는 장면들에서 이 '카츄샤 이야기'를 끌어들이는데, 문일이 편집한 영화소설 『아리랑(1929)』을 참고하면 다음의 두 부분, 즉 현구가 고향에 돌아와 오랜만에 영희를 만나 사랑을 속삭이는 장면(1), 그리고 풍년제 때 집에 홀로 남은 영희가 (1)에서 들었던 '카츄샤 이야기'를 떠올리며 현구와의 이별에 대한 "환상"을 보는 장면(2)이라 할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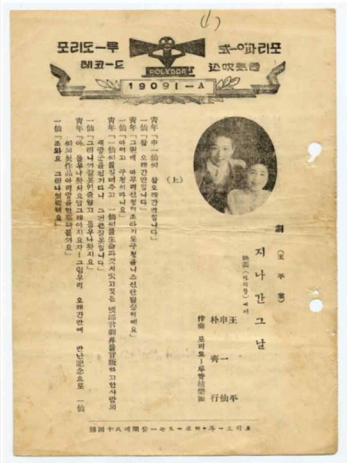
65 익명의 한 심사자는 본 연구가 신일선 배우론인 만큼 「신일선전(傳): 무너진 아리랑-불출(不出)편」(1934)을 다루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평을 남겨 주었다. 이 음반의 음원은 남아 있으나 불행히도 상태가 좋지 못하여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또 가사지도 전해지지 않는다. 양반 가문으로 시집간 여성이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이난영이 부른 「아리랑」이 수록되었다는 정도만 파악 가능하여, 본 논문에서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66 정종화, 「조선 무성영화 스타일의 역사적 연구」,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박사논문, 2012, 142-143쪽.

67 우수진, 「카츄샤 이야기-〈부활〉의 대중서사와 그 문화변용」, 『한국학연구』 제32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4, 213-222쪽.



[그림 15] 「아리랑」의 극중극 「카츄샤」 (『동아일보』, 1927.10.15.). 1929년 출간된 영화소설 『아리랑』에도 이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



[그림 16] 「지나간 그날」의 가사지 첫면. 한국음반아카이브연구소 http://www.sparchive.co.kr/v2/sub/search/music.php?at=view&id=22800 (최종 접근: 2025.02.12. 22;05pm)

(1) 현구는 영희의 손목을 다정스러히 붙잡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준다.

T 네류덕[네플류도프-인용자]이 카츄샤의 손목을 잡으면서

"나는 모스크바로 가기 싫다."

그러나 카츄샤는 부끄러워서 얼굴만 빨개지고 그 대학생의 얼굴도 쳐다보지도 못했답니다.

윤[윤현구-인용자]은 이렇게 영희에게 카츄샤의 소설 이야기를 해 들린다. 현구는 또 이야기를 계속한다.

T 그러는 동안에 하기 방학도 지나가고 두 사람은 할 수 없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학생이 파노보를 떠나 모스크바로 가는 날 아침에...

역시 카츄샤 이야기는 계속된다.[68]

68 문일 편, 『아리랑』, 박문서관, 1929, 18쪽.

(2) 이 즐거운 날에 외로히 남아있는 영희는…

기쁨에 홀로 남아있는 영희는 현구의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장차 앞으로 돌아올 이별의 날을 생각하고 있었다.

다시금 사진은 현구의 환영으로 나타나 보였고 이것이 다시금 애닯은 이별의 환영으로 화하였다.

네류덕이 카츄샤를 파노보에 쓸쓸히 홀로 남겨놓고 영원히 찾아주지 않는 거와 같이 현구도 나를 이 쓸쓸한 농촌에 버려놓고 떠나가서 다시 영원히 찾아주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꽃아침 달저녁을 나는 그의 올 때를 기다리면서 원망과 탄식의 일생을 마치고 말겠지…하는 여러 가지 어지러운 생각에 젖어 있을 때 아직도 농민들은 기쁨에 넘쳐 춤추며 노래부르고 있었다.[69]

영화 「아리랑」의 서사 전개를 지연시키며 '카츄샤의 이야기'를 끌어들인 (1)의 장면은 다소 이질적이어서 "너무 농촌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것은 순전히 도회의 바람든 경박소년(輕薄少年)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데 지나지 못한 것이요, 결코 '아리랑' 고개를 배경으로 한 농촌시(詩) 영화라면 들어갈 장면이 아니"[70]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신일선이 연기하는 영희에게 할당된 대사가 많지 않은 이 영화에서, '카츄샤의 이야기'는 영희가 현구와의 사랑에 대해 갖는 불안을 대변해 주는 레퍼런스이면서 '카츄샤를 연기하는 (신인) 배우 신일선'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제 1933년에 컴백한 신일선이 취입한 음반 「지나간 그날」이 영화 「아리랑」의 '카츄샤 이야기'를 재소환한다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아리랑」의 신일선'을 마케팅 포인트로 삼으려는 의도 때문이겠으나, 무성영화가 사라지는 시대에 「아리랑」의 특정 장면을, 신일선의 목소리로 기록해 둔다는 의미도 있었다. 이것은 남성 변사의 목소리로 연행되고 또 음반으로 기록된 영화극 「아리랑」과도 차별화되는 것이다. 더욱이 「지나간 그날」은 여러 겹의 화자 층위를 갖고 있어서,

69 위의 책, 24쪽.

70 포빙(抱氷), 「신영화 「아리랑」을 보고」, 『매일신보』, 1926.10.10.

신일선이 신일선 자신을 연기하는 대목도 포함한다.

청년 “신일선 씨, 참 오래간만입니다.”

일선 “참 오래간만입니다.”

청년 “그런데 아무리 신정이 좋다기로 구정을 잊으신단 말씀이에요.”

일선 “아이고 구정이라니요.”

청년 “일선 씨를 길러주고 일선 씨를 생명과 같이 믿고 있던 옛 낭군 극계를 배반하고 한 사람의 새 낭군을 섬기다니 그건 큰 잘못입니다.”

일선 “그러니까 잘못인 줄 알고 도로 나왔지요.”

청년 “아 도로 나왔어요. 암 그래야지요. 자- 그럼 우리 오래간만에 만난 기념으로 일선 씨의 첫 작품「아리랑」을 한 막 해볼까요.”

일선 “좋아요. 그러나 어떻게요.”

청년 “자! 이렇게만 하세요? 알겠지요.”

일선 “네.”

소녀 “그 무슨 책인데 재미있게 보세요.”

청년 “이거 기막히는 책입니다.”

소녀 “그럼 이야기라도 좀 해주세요.”

청년 “네, 이야기해 드리지요. 자! 똑똑히 들어요. 옛날 옛날 그 옛날 그 어느 나라 고요한 농촌에 카츄샤란 어여쁜 소녀가 있었더랍니다. 그 어느 해 여름 마치 지금같은 여름철, 그곳에 피서온 네류덕이란 대학생과 청춘의 열정이 오고가는 동안에 세상을 모르던 순진한 카츄샤의 가슴에는 까닭모를 사랑의 싹이 움돋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허무한 세상 일이라, 탐화광접71같은 사나이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캄캄한 윤락의 거리에서 병들은 여생을 이어가던 카츄샤가 결국은 그 무슨 죄명으로 철창 안의 신세까지 지게 되었지요. 그것을 안 옛날의 연

71 探花狂蝶. 꽃을 찾아다니는 미친 나비라는 뜻으로, ‘탐화봉접(꽃을 찾아다니는 벌과 나비라는 뜻으로, 사랑하는 여자를 그리워하여 찾아가는 남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

인 네류덕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카츄샤가 있는 감옥으로 면회를 하러 온 것입니다."

네류덕 "오 카츄샤 – 카츄샤야 – "

카츄샤 "아니 나를 부르는 게 대관절 누구요. 이 세상에서는 카츄샤같이 천한 계집아이를 그토록 다정히 불러줄 사람은 없었거든 당신은 누군데."(…) [폰트를 달리한 강조-인용자][72]

이 극에서 신일선은 '신일선 자신→영화「아리랑」속의 소녀(현구와 대화하는 영희)→현구의 이야기『부활』속의 카츄샤'라는 세 가지 역할을 연속해서 맡고 있다. 그리고 이 극은 영화소설『아리랑』에서 전경화했던 '파노보 이별장면'이 아니라 오랜 세월이 지나 감옥에 갇힌 카츄샤와 네플류도프가 재회하는 장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자신과 처지가 다른 대학생 현구와의 이별 예감에 불안해하는 영희가 아니라, "캄캄한 윤락의 거리에서 병들은 여생"을 이어가다가 네플류도프와 재회하고 그를 매몰차게 거절하면서도 사랑을 숨기지 못하는 카츄샤를 강조하는 것이다. 극 서두에 극계라는 옛 사랑("구정")을 "배반"했던 신일선을 질책하고 원망하는 "청년"의 멘트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왔다고 고백하는 신일선 자신의 멘트를 삽입함으로써, 이 극은 6년 만에 컴백한 스타로 하여금 '지나간「아리랑」시절'과 카츄샤의 절규를 연기하게 만드는 셈이다.

이 음반의 B면은 신일선과 "청년"이 다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번에는 "영진이[나운규 분-인용자]가 7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데," 즉「아리랑 후편」의 한 장면을 연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서 신일선은 영진의 부인 영순을 잠깐 연기할 뿐 뒤로 물러나 있는데,[73] 그래서 중요한 것은 "7년 만에" 주인공이 고향에 돌아온다는 설정이겠다. 즉「지나간 그날」은 그 노스탤지어적 제목처럼 신일선의 컴백과 함께「아리랑」과 '카츄샤'의 코드들을 소환하며 새출발을 다짐하는, 다분히 자기반영적인 극 음반이라 할 수 있다.

---

72 왕평 안,「지나간 그날: 영화「아리랑」에서」, 한국고음반연구회·민속원 공편저,『유성기 음반 가사집(전통음악·극·양악·유행가)』, 민속원, 1990, 491-492쪽.

73 신일선이 결혼한 후에 제작된「아리랑 후편」(1930)에서 '영희'역은 임송서가 맡았다.

3.2 영화와 시나리오 활동: 「청춘의 십자로」(1934)부터 「기생편: 수야(愁夜)」(1937)까지

한편, 신일선은 영화계에도 복귀하여 방한준 감독의 「고향」에서 주연을 맡을 예정이었으나 좌절되고[74], 「청춘의 십자로」(안종화, 1934)로 먼저 컴백을 알렸다. 주지하듯 이 작품의 프린트는 2007년에 발굴, 공개되어 신일선이 연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영화가 되었지만, 네거티브 판본인 데다 총 9롤 중 1롤은 부패가 심해 복원되지 않은 상태이다.[75] 신일선이 맡은 역은 주인공 영복(이원용 분)의 여동생으로, 농촌에서 오빠를 찾아 서울에 왔다가 만나지 못하고 카페 여급 생활을 하던 중 한량들(영복의 원수인 주명구와 장개철)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영옥이다. 신문에 실린 "경개"를 읽지 않으면 영옥이 누구인지, 과거가 어떤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76], 현재의 관객이 영화만 보았을 때 영옥-신일선은 카페에서 담배를 피는 모습으로 처음 등장하게 된다. [그림 17]



[그림 17] 발굴된 「청춘의 십자로」에서 신일선의 등장 장면.

74 박영호 원작의 「고향」을 금강키네마에서 제작할 예정이었으며, 신일선은 이원용과 함께 주연을 맡기로 되어 있었다. 「금강키네마 「고향」 제작」, 『조선일보』,1934.4.21.

75 정종화, 앞의 책, 244쪽 참조.

76 경개는 「금강 키네마사 작품 「청춘의 십자로(전10권)」」(『매일신보』, 1934.9.22.)에 소개되는데, 다음 내용이 현재 훼손된 롤에 담겨있는 듯하다. "[영복이 봉선과-인용자] 성례(成禮)하게 될 때 한 마을에 살고 있는 주명구에게 봉선을 빼앗기고 오직 자기의 기구한 운명을 탄식했을 뿐으로 늙은 자모(慈母)와 누이동생 영옥을 고향에 남기고 길을 떠났다. (…) 고향의 남아있던 영옥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매 오빠를 찾아 상경했던 끝에 생활난으로 카페의 여급이 되었다."



[그림 18] '라이온 치마분'과 제휴한 영화 「은하에 흐르는 정열」 전면 광고. 학생복을 입은 신일선과 이원용이 보인다. 『조선일보』, 1935.9.7.

'농촌 출신의 젊은 여성이 오빠를 찾아 서울에 왔다가 생활난 때문에 카페 여급이 되었다'는 이런 설정은, 나운규의 활극 시대가 저물고 토키 시대로 이행 중이던 조선 영화계에 복귀한 신일선의 위치를 예견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제 과거처럼 "순결"한 농촌 처녀 혹은 철없는 여학생을 연기할 수 없고, 그렇다고 소위 '뱀프(vamp-요부)' 역을 소화하기도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규환은 「청춘의 십자로」로 돌아온 신일선에 대해 "순진한 농촌의 처녀로서 도회로 밀려 나와 탕아들의 완롱물이 되어 시들어져 가다가 또다시 색마의 손에 그의 정조를 잃어버리고 버림을 받는 비운에서, 그야말로 청춘의 십자로에서 슬피 우는 가련한 여성의 처지를 신 양은 그럴 듯이 보여준다. 어느 편으로 보면 그에게 적역이니만치 숨은 곳을 잘- 찾아보면 그의 연기에 싸여 들어감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77]라고 평한다. 신일선의 사생활과 영화 내 캐릭터를 이렇게 유비 관계에 놓는 언급은 줄곧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데,[78] 이런 담론은 결과적으로 그의 운신의 폭을 좁

77 이규환, 「금강키네마 작품 「청춘의 십자로」를 보고 (하)」, 『조선일보』, 1934.10.3.

78 예컨대 윤봉춘도 "···신일선이는 「들쥐['야서(野鼠)'를 말함-인용자]」의 스토리와 같이 알지도 못했던 사나이, 맘에도 없는 사나이에게 오빠의 강권 때문에 전라도 어느 부자에게 시집을 갔는데···"라고 회고한다. 윤봉춘, 「나와 영화 반세기: 첫 '데뷔' 작품은 1927년의 「들쥐」」, 『월간 영화』, 1974.7.

히는 효과를 낳았을 수 있다.

신일선의 마지막 무성영화 「은하에 흐르는 정열」(안종화, 1935)은 "조선의 온갖 문화 기관을 통해 레코드로, 라디오 드라마로, 신문 연재 시나리오로, 또는 조선에서 최고라고 할 모 회사와 타이업을 하여 신문광고로 선전"[79]했다. 실제로 실연 사진을 담은 시나리오 연재와 영화 제작이 거의 동시에 시작되었고(따라서 실연 사진은 영화 촬영 중에 만든 것일 가능성이 높다), 개봉 직전에는 이운방 각색, 박진 연출, 복혜숙 해설의 라디오 드라마[80]로 방송되었다. 또 '라이온(ライオン) 치마(齒磨) 회사'와 타이업을 하여 『조선일보』에 전면 광고를 싣는 등[그림 18], 당시로서는 보기 드물게 치밀한 마케팅에 신경을 썼던 작품이다.

이 영화는 대학생 순영(이원용 분)과 연숙(신일선 분), 그리고 그 친구들을 다루는 "학생영화"[81]로, 미취학 아동을 위한 교육 문제를 건드리면서도 "남녀 학생 5,6명이 작반하여 해수욕과 등산"을 하는 "일류 불량 학생"을 그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각본과 각색, 감독을 한 사람(안종화)이 맡아서 함으로써 각본의 단조로움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받았다.[82] 시나리오상으로도 대학생들의 유희와 연애 문제,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교육 사업에 헌신하는 문제, 유한(有閑) 부인의 섹슈얼리티와 모략 등 초점이 산만하게 흩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일선이 연기한 연숙은 "음전스럽고 엄숙"[83]한 애인 순영을 존경하여 그의 육영사업을 살리기 위해 부모의 결혼 제의를 받아들이는 희생적인 캐릭터이다. 그는 사고로 다리를 잃은 후 결국 사망하고 마는데, 이 후반부의 실연 사진은 줄곧 양장 학생복과 모자를 착용한 발랄한 모습이 묘사되던 전반부의 그것과 대조를 이룬다.[그림19-21]

79 서광제, 「「은하에 흐르는 정열」을 보고(3)」, 『동아일보』, 1935.9.13.

80 라디오 드라마에서는 주인공 백순영을 서월영이, 연숙을 김선초가 연기했다. 「영화극 「은하에 흐르는 정열」」 광고, 『조선일보』, 1935.9.4.

81 「은하에 흐르는 정열」 광고, 『동아일보』, 1935.9.8.

82 서광제, 「「은하에 흐르는 정열」을 보고(2),(3)」, 『동아일보』, 1935.9.12.-13.

83 안종화, 시나리오 『은하에 흐르는 정열』 4회, 『조선중앙일보』, 1935.8.23.



[그림 19]「은하에 흐르는 정열」4회 실연 사진. 이원용과 신일선. 『조선중앙일보』, 1935.8.23.



[그림 20]「은하에 흐르는 정열」15회 실연 사진. 이원용과 신일선. 『조선중앙일보』, 1935.9.7.



[그림 21]「은하에 흐르는 정열」19회 실연 사진. 목발을 짚은 신일선. 『조선중앙일보』, 1935.9.12.

한편, 신일선의 컴백에 대해 나운규는 별도의 글을 발표했을 정도로 환영과 충고를 표했고,[84] 1936년에는 신일선과 함께 「아리랑 3편」을 만들기도 했다. 이 작품은 나운규와 신일선이 다시 만나 만드는 「아리랑」일 뿐만 아니라 '전발성(토키)'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으나, 사운드와 대사면에서 모두 불만족스러웠다. 특히 비난을 받았던 것은 (역시 광인 최영진을 연기한) 나운규가 "철쇄에 얽혀 자유를 잃고 몸부림을 칠 때에 발하는 그 아우성 소리"였다.[85] 데뷔 때부터 '노래'를 잘하는 배우로 주목받았던 신일선도 본인 최초의 발성영화에서는 별다른 수완을 보여주지 못했던 듯하다.

다만 나운규가 연기하는 최영진과 신일선이 연기하는 그 동생 영희의 맥락에서 볼 때, 「아리랑 3편」에서 이제 영희가 죽어버린다는 사실은 여러모로 의미심장하다. 이번에도 영희는 겁탈당할 위험 앞에 놓이는데, 오빠 영진은 악한에 의해 감금되는 바람에 그녀를 구하러 오지 못한다. 영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식도를 들고 악한을 막으려 했으나 그만 그 자신이 칼에 찔려 사망해 버려서,[86] 「아리랑」 시리즈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캐릭터가 된 셈이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84 나운규는 신일선의 컴백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이제는 얼굴만 가지고 명배우 노릇할 때는 이미 지나갔"으므로 극예술에 대한 공부를 하라고 충고한다. 「'부활한 신일선'관, 극계와 영화계의 이일 저일까지」, 『삼천리』 제5권 제9호, 1933.9.

85 김중희, 「「아리랑 제3편」을 보고서」, 『영화조선』 창간호, 1936.9.

86 「아리랑 3편」의 경개는 「조선어 전발성 「아리랑 제3편」」(『동아일보』, 1936.2.7.) 참조.

다음 해에 나운규는 세상을 떠나고 신일선은 기생이 되어 영화계를 은퇴함으로써, 이 영화는 1926년 「아리랑」이 배출했던 스타 두 명이 마지막으로 함께 한 작품이 되어 버렸다.

"하늘을 찌르던" 신일선의 인기는 "다시 바라볼 수 없"게 되었고, 1936년 말 그는 "임생원이라는 이가 경영하는 문수성이라는 순회극단"에 적을 두게 된다.[87] 그리고 1937년 1월, 갑자기 신일선이 기생으로 전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명여우" 신일선이 종로서에 기생 영업 허가원을 제출했고 기적은 한성권번이라는 것이다.[88] 한성권번 연예부에서는 2월 '가무극의 밤'을 마련하면서 "얼마 전에 동 권번에 입적한 신일선도 여기의 처녀 무대를 밟게 되었으며 기생으로서 신일선의 초년병 자태를 보이리라"[89]는 소식을 전하는데, 부민관에서 이루어진 이 행사에서 신일선이 선보인 레퍼토리는 "넌센스[난센스]"였다고 한다.[90]

"일찍 은막에 죄없고 티끌없는 아담한 자태를 비추어 장안 청춘 사녀(士女)를 뇌살시키"던 신일선이 왜 기생의 길을 선택했는가 묻는 어느 기자에게 그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 …영화배우로 지낸대야 어디 생활 안정을 얻을 수 있어야지요. 그러니 생활비는 이렇게 하여 얻고 영화 방면에는 보수같은 것을 바라지 않고 그저 예술적, 양심적으로 나오고 싶어요.[91]

앞서도 언급했듯 신일선의 사생활과 영화 내 캐릭터를 유비 관계에 놓는 언급은 자주 등장하는데, 그가 기생으로 전신한 후 기생 역을 맡아 실연 사진에 출연한 단편 시나리오 「기생편: 수야(愁夜)」는 그 정점이자 마지막에 놓여 있다. 안종화, 김유영, 이규환, 서광제, 안석영 등 일곱 명의 작가들이 "명류 영화인이 본 여인생활의 백면상(白面相)"이라는 부제 하에 각자의 단편 시나리오를 『동아일보』

87 「화형(花形) 후일담」, 『조선일보』, 1937.1.8.
88 「명여우 신일선, 기계(妓界)에 진출」, 『조선일보』, 1937.1.31.
89 「한성권번 연예부 '가무극의 밤'」 『조선일보』, 1937.2.10.
90 「한성권번 가무극의 밤」, 『조선일보』, 1937.2.11.
91 「장한가 부르는 박행(薄倖)의 가인 신일선」, 『삼천리』 제9권 제4호, 193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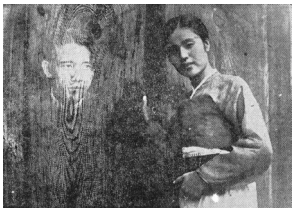
(1937.8.15.-9.30.)에 연작 형식으로 연재했던『여인부락(女人部落)』에서, 당시 가장 유망한 감독으로 부상하던 박기채는 신일선을 '기생' 금주로 등장시킨다. 미신에 빠진 구여성(현순영 분), 허영심 많은 신여성(황정미 분), 카페 여급(현순영 분), 여학생(김연실, 황정미 분), 여배우(복혜숙 분), 권태로운 상류 부인(김소영 분) 등으로 여성을 유형화한 이 프로젝트에, 몇 달 전 실제로 기생이 된 신일선이 '기생' 역을 맡아 참여했던 셈이다. 이 작품은 이후 신일선의 어떤 회고나 기록에서도 언급되지 않고 영화사(史)에서도 누락되어 있는데, 그 연재 시기가 나운규의 사망(1937.8.9.) 직후여서 묘한 울림을 준다. 훗날 1970년의 회고에서 신일선은 자신이 기생 일을 했었다는 내용은 제외하고 있다.[92] 그는 문수성에서 순회공연을 하다가 1938년 5월에 "조용히 은퇴하기로 결심"했으며, "존경하던 나 선생[나운규-인용자]이 세상을 떠난 것이 내가 은퇴하게 된 큰 동기 중의 하나"라고만 말한다.[93]



[그림 22]「기생편: 수야(愁夜)」의 신일선과 김일해, 1937.08.29.



[그림 23]「기생편: 수야(愁夜)」의 신일선, 1937.8.31.



[그림 24]「기생편: 수야(愁夜)」에서 애인 영삼(김일해 분)을 생각하는 금주(신일선 분), 1937.9.1.

신일선의 식민지 시대 마지막 행적으로 현재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1937년 9월, 조선 기생들이 중국 친화회에 가서 "황군 위문금 모집 위문 연주회"를 가질 예정

92 신일선은 나운규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가 "영화계에서 발을 끊고 문수일 씨가 이끄는 '반도예술단'을 따라 평양에서 공연할 때였다"라고 말한다. 신일선,「무성영화 시대: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13)」,『중앙일보』, 1970.12.7.

93 신일선, 위의 글(14), 1970.12.8.

이라는 기사[94], 10월에 평양에서 신불출이 개최한 만담대회에 그가 나품심과 함께 출연한다는 소식 정도이다.[95]

4 제3기: '「아리랑」과 나운규의 신일선'으로 기억되다

> 선진국의 그것을 살펴볼 때 여배우 이야기는 가십과 연애사건 등 그들의 출연하는 극과 영화의 이야기처럼 명랑한 것이 통례가 되어 있으나 이곳의 사정은 그와 반대로 엄숙한 느낌을 가지게 한다. 사실 그들의 공사(公私)를 통한 생활 속에는 명랑한 그림자는 찾을 길 없고 도로혀 비극으로 일관되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강조-인용자][96]

훗날 신일선은 자신이 25세 때 갑부인 K씨와 결혼하여 의정부에서 살다가 한국전쟁시 피난 생활을 하며 빈곤해져 평택 등에서 식료품 장사를 했다고 말한다.[97] 이후 그는 나운규 20주기 기념으로 남양영화사에서 제작한 「아리랑」(김소동 감독, 1957)에 "영진의 은사 부인으로 한 컷만"[98] 특별출연했고, 1959년 3월 친구들의 도움으로 서울 다동에 '희원'이라는 한식집을 개업했다가 청진동에 '근원'이라는 요정을 내기도 했다. 그 뒤엔 성모병원 입구에 '선산집'이라는 음식점을 차렸다.[99] 1962년 나운규 탄생 60주년 기념 모임에 참석하여 "눈물 어린 목소리로 '아리랑' 노래를 불렀"다.[100] 그해 백년설이 기획한 '가요 40년제'에 복혜숙, 전옥 등과 함께 출연하기도 했다. 1963년에는 이규환이 만든 영화 「상처받은 두 여인」에 특별 출연했고, 1966년 4월에 마포 서강의 양화진 나루터에 '삼미'라는 선술집을 차렸다. 이후 나운규 동상 기공식(1967) 피날레에서는 신일선이 "「아

94 「조선 기생들 총후 적성」, 『매일신보』, 1937.9.14.
95 「만담대회 개최」, 『조선일보』, 1937.10.26.
96 「여배우 번영기(1)」, 『조선일보』, 1938.1.4.
97 「흘러간 별들」, 『동아일보』,1959.10.29.-30.
98 신일선, 「무성영화 시대: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14), 『중앙일보』, 1970.12.8.
99 신일선, 위의 글(15), 1970.12.9.
100 「아리랑도 목이 메어...」, 『동아일보』, 1962.11.24.

리랑」 라스트 신에서 노래했던 주제가를 독창"하고 "참석자들이 2절을 합창"하기도 했다.[101]

1970년 겨울에 발표한 회고록 마지막 부분에 그는 청송에서 암자를 구입하여 간간이 하숙을 치면서 외롭게 지내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1979년엔 한국영화평론가협회로부터 특별 공로패를 받았고,[102] 이후 1983년과 1986년에 그가 고혈압과 중풍으로 투병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103] 신일선은 1990년 6월 여의도에서 세상을 떠났다.

5 마치며

임화는 1936년에 쓴 「이월화, 신일선」이라는 짤막한 글에서 신일선을 "조선 영화 공연 이래 가장 좋은 여배우로 좋아합니다."라 말하며 「아리랑」(1926)의 "가장 전형적인 조선의 처녀"의 이미지를 지적한다.

> 그가 없는 시는 나운규 씨의 걸작 「아리랑」은 저만치 조선의 좋은 향토색이라든가 아담한 분위기라든가 연출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조선의 나이 어린 처녀를 연묘(演描)하는 때 여태까지의 어느 여배우보다도 출중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저뿐이 아니라 대부분의 영화 관객들은 신일선을 통하여 가장 전형적인 조선의 처녀를 느끼었을 것입니다.[강조-인용자][104]

여기서 임화는 신일선의 데뷔 초에 여타 평자들이 말했던 '순결'한 이미지보다는 "조선의 좋은 향토색"을 신일선에 결부시키고 있다. 몇 년 후 임화가 「조선영화발달소사」에서 영화 「아리랑」을 가리켜 "소박하나마 조선 사람에게 고유한 감

101 「춘사 나운규 동상 기공」, 『조선일보』, 1967.11.30.
102 「원로 영화인에 공로패」, 『동아일보』, 1979.12.15.
103 「무성영화 '아리랑' 여주인공 신일선 씨 반신불수돼 단간방에서 외로운 투병」, 『조선일보』, 1983.1.23.; 「중풍과 투병 10여 년...성경공부 전념」, 『경향신문』, 1986.3.27.
104 임화, 「이월화, 신일선」, 『모던 조선』 창간호, 1936.9.

정, 사상, 생활의 진실의 일단(一端)이 적확히 파악되어 있”고 “조선 영화가 탄생 이후 당연히 가져야 할 것이지만 미처 가지지 못했던 것”을 관객에게 주었으며 “일세(一世)의 인기 여배우 신일선을 세상에 내놓”아 “모뉴멘트”가 되었다 평가한 것[105]과 연결되는 시각이다.

「아리랑」과 나운규의 ‘신화’가 공식화된 것은 나운규 사후 1938년에 개최된 ‘제1회 조선일보사 주최 영화제’에서 “조선영화 베스트 10”을 선정하면서인데, 여기에서 「아리랑」은 “무성영화부 1위”를 차지했다.[106] 이 선정에 5,000여 명의 일반 관객들이 참여했다는 걸 염두에 두면, 임화도 지적하듯 “자본의 강요,” 즉 문화산업이 발달하지 않은(못한) 시스템 속에서 “자연발생적으로 관중이”[107] 만든 인기를 수긍할 수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나 해방 후에나 「아리랑」과 나운규의 이 ‘신화화’ 과정에서 신일선은 계속 그림자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곱씹을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신일선은 「아리랑」으로 데뷔한 후 매우 다채롭고 활발한 활동을 했다. 6년간의 공백 후 컴백했을 때도, 영화와 음반, 공연 등에서 그가 남긴 업적은 적지 않다. 하지만 근대 초기 ‘여배우’라는 존재가 놓여 있던 모순적인 좌표(열광과 멸시, 사랑과 혐오가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로 인해 그는 ‘결혼(및 이혼)’ 하나로 낙인찍힌 존재가 되었다. 또 식민지 문화산업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그가 선택했던 길들(기생으로의 전신, 재혼 혹은 삼혼)은 그 낙인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오랜 시간이 지나 나운규와 「아리랑」의 ‘신화화’가 완료되어 갈 즈음에야 다시 호출되고 기억되는 자리를 얻었지만, 그에게는 ‘나운규와 「아리랑」의 신일선’ 이외의 이름표는 허용되지 않았다. 나운규의 동상 제막식에서 주제가 「아리랑」을 선창할 자격을 가졌던 유일한 생존자로서만 말이다.

생애 끝까지 자신의 15세 시절 데뷔작으로만 기억되었던 신일선. 그로부터 다양한 모습들, 즉 각종 아카이브에 숨겨져 있는 신일선, 희활극의 신일선, “까불까불 유쾌하게 뛰노는”[108] 신일선, “그레타 가르보의 요염한 눈”을 좋아하는[109]

105 임화, 「조선영화발달소사」, 『삼천리』 제13권 6호, 1941.6.
106 「본사 주최 제1회 영화제」, 『조선일보』, 1938.11.25.
107 임화, 「이월화, 신일선」, 『모던 조선』 창간호, 1936.9.

신일선 등을 끄집어내는 작업은 후대의 연구자 혹은 팬에게 남겨진 과제가 아닐까 한다.

참고문헌

기본 자료

신일선이 출연한 영화, 영화소설, 시나리오 목록은 본문의 〈표1. 신일선의 대중문화 활동〉으로 대신함.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신보』, 『중외일보』, 『조선중앙일보』

신일선, 「영화계를 떠났던 신일선의 고백」, 『중명』, 제1권 32호, 1933.8.

_____,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중앙일보』, 1970.11.23.-12.10.

왕평 안(案), 왕평·신일선·박제행, 「지나간 그날: 영화 「아리랑」에서」, 한국고음반연구회·민속원 공편저, 『유성기 음반 가사집(전통음악·극·양악·유행가)』, 민속원, 1990, 491-496쪽.

기사

김을한(영화동호회), 「「아리랑」 6권. 조선키네마 작」, 『동아일보』, 1926.10.7.

김중희, 「「아리랑 제3편」을 보고서」, 『영화조선』 창간호, 1936.9.

김태진, 「무대는 돌아간다(4): 여배우 무상 부침기」, 『조선일보』, 1939.6.6.

나웅, 「사라진 명우 군상, 생각나는 사람 보고싶은 사람」, 『삼천리』 제10권 11호, 1938.11.

심훈, 「조선 영화계의 현재와 장래(1)」, 『조선일보』, 1928.1.1.

108 「조선 영화계 유일의 화형 여우 일문일답」, 『별건곤』 제7호, 1927.7.

109 영화인 설문조사에서 신일선은 "그레타 가르보의 요염한 눈이 좋아요...가만히 눈을 내리뜰 때 기다란 속눈썹이 간즈럽게 움직이는 그것이 좋아요."라 답한 적이 있다. (「영화 비상시, 영화인의 저녁: 영화를 떠난 영화 한담」, 『조선일보』, 1936.1.7.) 그레타 가르보(Greta Garbo)의 영화들(「명모(明眸)의 죄(The Temptress)」(1926), 「안나 크리스티(Anna Christie)」(1930), 「인스피렌숀(Inspiration)」(1931) 등)은 조선에서 1928년부터 상영되었다.

양훈, 「라디오 드라마 예술론: 그 미학 수립을 위한 일 시론」, 『동아일보』, 1937.10.13.
윤봉춘, 「나와 영화 반세기: 첫 '데뷔' 작품은 1927년의 「들쥐」」, 『월간 영화』, 1974.7.
이서구, 「내가 본 신일선」, 『매일신보』, 1927.3.11.
임화, 「이월화, 신일선」, 『모던 조선』 창간호, 1936.9.
____, 「조선영화발달소사」, 『삼천리』 제13권 6호, 1941.6.
포빙(抱氷), 「신영화 「아리랑」을 보고」, 『매일신보』, 1926.10.10.
「장한가 부르는 박행(薄倖)의 가인 신일선」, 『삼천리』 제9권 제4호, 1937.5,
「조선영화계 유일의 화형 여우 일문일답」, 『별건곤』 제7호, 1927.7.
「명우 나운규 씨, 〈아리랑〉등 자작 전부를 말함」, 『삼천리』, 제9권 1호, 1937.1.
「장안 '재자가인', 영화와 흥망기」, 『삼천리』 제11권1호, 1939.1.
「'부활한 신일선'관, 극계와 영화계의 이일 저일까지」, 『삼천리』 제5권 제9호, 1933.9.
「조선 영화계 유일의 화형 여우 일문일답」, 『별건곤』 제7호, 1927.7.

단행본

강옥희 외, 『식민지 시대 대중예술인 사전』, 도서출판 소도, 2006, 188-190쪽.
문일 편, 『(영화소설) 아리랑』, 박문서관, 1929, 18-24쪽.
백문임 외 엮고 씀, 『키네마: 영화소설과 시나리오 2』, 보고사, 근간.
리처드 다이어, 주은우 역, 『스타-이미지와 기호』, 한나래, 1995, 30-183쪽.
몰리 해스켈, 이형식 역, 『숭배에서 강간까지: 영화에 나타난 여성상』, 나남출판, 2008, 63-110쪽.

논문

신수정, 「1930년대 여배우의 유성기 음반 활동 연구」, 『음악과 현실』 제52호, 민족음악학회, 2016, 101-146쪽.
우수진, 「카츄샤 이야기-〈부활〉의 대중서사와 그 문화변용」, 『한국학연구』 제32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4, 209-241쪽.

이화진, 「무성영화 〈괴인의 정체(1927)〉의 재구성」, 『한국극예술연구』 제77호, 한국극예술학회, 2022, 181-210쪽.
정종화, 「조선 무성영화 스타일의 역사적 연구」,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박사논문, 2012.
천정환, 「욕정과 순정, '스타'의 두 얼굴」, 『신동아』, 2004. 10, 574-587쪽.
황문평, 「민족영화 〈아리랑〉의 여주인공 신일선」, 『인물로 본 연예사: 삶의 발자국(1)』, 도서출판 선, 1998, 306-318쪽.

Abstract

A Study of Star Actress Shin Il-seon(1912-1990)

Baek, Moonim(Yonsei University)

Shin Il-seon (申一仙; 1912-1990) stands as one of the pioneering actresses in early Korean cinema, achieving widespread public acclaim at the age of 15 with her debut in *Arirang* (Na Un-gyu, 1926), a film that earned her the epithet "Joseon's Sweetheart." Throughout the 1920s and 1930s, she emerged as a key figure in the nascent cultural industries of Joseon, including cinema, broadcasting, and theater. However, her career was marked by a series of abrupt retirements, first following her marriage in 1927, then again in 1938 after financial hardships led her to become a *gisaeng*. After Korea's liberation, she contributed to the posthumous canonization of *Arirang* and its director, Na Un-gyu. Despite her prominence, scholarly attention to Shin Il-seon has been scant, with even basic biographical details yet to be compiled.

This paper seeks to reconstruct the multifaceted career of Shin Il-seon, who appeared in ten extant films, including *When the Sun Rises* (Sim Hoon, 1927), *Arirang 3* (Na Un-gyu, 1936), and *Crossroads of Youth* (Ahn Jong-hwa, 1934). In addition to her filmography, Shin was involved in drama albums, radio plays, and stage productions. This study also explores her involvement in the creation of "actual performance[實演]" photographs, alongside her work in film novels and scenarios, from *People in White* (Lee Gyeong-son, 1927) to *A Chapter for Gisaeng: Sad Night* (Park Gi-chae, 1937). By reevaluating these lesser-known facets of her career, this paper aims to illuminate the complexities of Shin Il-seon's legacy, offering a critical analysis of how her persona as both an actress and a star shaped early Korean cinema and popular culture.

Key words: Shin Il-seon, Star Image, Actress, *Arirang(1926)*, Drama Album, “actual performance[實演]” photograph, Film Novel, Scenario

논문제출 / 2025.02.28.
논문접수 / 2025.03.16.
게재확정 / 2025.04.04.